

도 당초예산 5조원 시대 활짝

도는 5조1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4조5,589억원보다 4,422억원(9.7%)이 증가한 액수로 당초 예산이 5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면
논란이 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예산 23억원은 편성하지 않아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은 무산됐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조3,116억원으로 올해 4조340억원보다 6.9%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올해 5,249억원보다 31.4%가 증가한 6,895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수요는 인건비 등 의무적 경

내년도 5조11억원 도의회 제출 친환경무상급식 23억 확대 인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 발행 충당 올림픽 붐 조성에 5,288억 투자

비 341억원(4.1%), 국고보조 도비 부담 835억원(21.7%), 신규·자체사업 177억원(4.4%) 등 올해보다 1,353억원 늘었다.

도는 세출 증가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대규모 사업의 사업기간 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분산하기로 했다.

또 부족한 세출 증가분은 동계올림픽시설 900억원, 지방도 400억원

등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다.

주요 분야별 사업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장 2,639억원, 개·폐회식장 286억원 등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및 붐 조성 사업에 5,288억원을 투자한다.

민생경제 분야로는 친환경무상급식 199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71억원, 맞춤형 농촌 만들기 22억원 등 1조1,144억원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889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656억원, 노인일자리 225억원, 대학생 장학금 20억원, 경로당 운영비 25억원 등 1조888억원을 투자한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급경사지 붕괴 34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96억원, 노후소방차량 76억원 등 3,443억원을 편성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송곡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간호과 | 보건의료정보과 | 사회복지상담과 | 유아교육과 | 이랜드와식서비스과 | 레저스포츠과 | 뷰티아트과
www.songgok.ac.kr 033-260-3600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올림픽 준비 재원 마련위해 건축 예산 편성

도건축사회 건축문화제 개최

도 당초 예산 5조원 시대

고위직 업무추진비 대폭 절감
지방채 발행 당초 500억 축소

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축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추가 부담 요인이 올해보다 1,353억원 증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동계올림픽시설 증가분 370억원, 급경사지 위험 정비 30억원 등 올해 대비 도비 추가 부담액만 835억원이다.

또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증가분 222억원,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 243억원 등 341억원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최우선 순위인 동계올림픽 준비 재원 마련을 위해 건축 예산을 편성,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 우선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실·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축소해 1억8,900만원을 절감했다.

기존 유지했던 실·국별 자율예산편성제를 신정한다제로 전환해 모든 사업을 재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다. 총 신청한 도액 1,113억원 중 1,035억원만 반영해 78억원을 줄였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및 서민경제 부분은 확대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1조888억

원, 민생경제 기반 구축에 1조1,144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확대는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기존 199억원만 반영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도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한다.

내년도 올림픽시설 지원 등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1,5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억원을 축소했다.

김명선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건축예산 기조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분야별 우선 순위를 고려해 재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성현기자

도건축사회가 개최하는 ‘2015년 강원 건축문화제’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KBS춘천방송총국에서 열린다.

올해는 강원건축문화상, 건축포럼, 공모전, 작품전, 어린이집 그리기 대회, 건축모형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도건축사회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우수건축물 등 홍보를 통한 건축문화 위상 제고와 함께 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유도에 따른 건축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강원건축문화제 16일 개막... '행사 다채'

허민구씨 강원건축문화상 대상 수상

2015 강원건축문화제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춘천에서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회장 최성두)가 주최하는 이번 문화제는 강원건축문화상, 건축포럼, 공모전, 작품전, 집그리기대회, 건축모형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17일 KBS춘천방송총국에서 개최된다. 올해 강원건축문화상 대상은 형제계 이 종합건축사사무소 허민구씨가 작품

한 '화천산악초마을'이 차지했다. 주거부문에서는 조덕규(건축사사무소 유덕건축)씨의 '가정리 가정집'이, 비주거부문에서는 이진선(성주건축사사무소)씨의 '고려출판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춘천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최계석(역사, 자연

즐거움을 담다), 김삼수(Tower Vibrancy), 이석권(물안개)씨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성두 도건축사회장은 "올 문화제는 공존과 연결이란 주제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건축을 연결하는 끈을 통해 건축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강원건축문화제가 차별화된 조형창작 문화예술 행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radio.net

아하! 그렇구나

Q 공동수급체의 종류

A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사를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일이 흔한데, 이처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건설업자 집합이 공동수급체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는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라고 정의한다. 국가계약법은 공동수급체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7호 공동계약 운용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는 4가지 종류의 공동수급체를 열거하고 있다.

공동이행 방식: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분담이행 방식: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관리 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혼합방식: 계약 담당자는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 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첫5兆대... 평창올림픽 집중

레고랜드 교량·상하수도 231억 반영

강원도

강원도는 2016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4조5589억원보다 9.7%(4422억원) 증가한 5조11억원으로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예산 편성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조3116억원으로 올해 4조340억원보다 6.9%(2776억원)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올해 5249억원보다 31.4%(1646억원) 증가한 6895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는 특히 대규모 사업의 사업기간 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분산하는 한편 부족한 세출 증가분은 동계올림픽시설 900억원, 지방도 400억원 등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재원전망보다 500억원을 축소 발행하는 것이다.

주요 분야별 사업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장 2639억원, 개·폐회식장 286억원 등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봄 조성 사업에 5288억원을 투자한다.

금경사지 붕괴 34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96억원, 노후소방차량 76억원 등 재난안전분야에는 3443억원을 편성했다.

영유아 보육료 889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656억원, 노인일자리 225억원, 대학생 장학금 20억원, 경로당 운영비 25억원 등 체감복지 분야에 1조88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분야로는 친환경무상급식 199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71억원, 맞춤형 농촌만들기 22억원 등 1조1144억원을 편성했다.

레고랜드 교량·상하수도 231억원, 도내 공항 활성화 54억원, 해외사업본부 설치 4억원, 국제회의산업 지원 5억원 등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랜드마크 개발에 442억원을 투자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안운수기자 ays77@

건설연 신임 원장에 이상호

“혁신·발전 선도...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사진)이 제7대 원장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이끌게 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이사회(이사장 최삼규)를 열어 제7대 원장으로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을 선임했다.

오는 12월2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상호 원장은 경남 김해 출신(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건설연이 출범한 지난 1995년 건설연에 입사한 후 정책연구실장 등을 지냈고 GS건설 전략담당 및 경영연구소장, 한미글로벌 사장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날 건설연 운영방향에 대해 민간연구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연구기관, 중소지역 건설사를 위한 연구활동을 강조하고 정책현안에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겠다”며 “연구원 화합과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삼규 건설연 이사장은 (건설산업) 상황이 어려울수록 연구원은 더욱 분발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고,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석기자 jskim@